

광주 운남동·여수 교동 ‘보행자 사고 1위’ 불명예

광주·전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은?

지난해 광주에서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광산구 운남동, 전남에서는 여수시 교동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해 지난해 1년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다발지역 2034곳을 선정해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위험지역 시설 개선 및 민간 내비게이션 정보제공 등에 활용된다.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609곳 중 광주지역 위험구간은 6곳, 전남에서는 15곳이 포함됐다.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서 9건의 사고로 보행자

도로교통공단, 광주 6곳·전남 15곳 등 위험지역 공개

광주 5개 자치구 중 서구 광천사거리 ‘교통사고 최다’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고, 남구 양림동과 광산구 소촌동 송정지하차도 부근에서는 각각 8건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다.

서구 화정동 교직원공제회 앞 교차로와 북구 오치동, 북구 양산동에서도 7건씩의 사고가 발생해 길을 지나던 지역민들이 사고를 당했다.

전남에서는 여수시 교동 여수교 부근에서 9건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고 목포시 상동에선 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나머지 13곳(목포시 용당동, 여수시서교동·공화동·군자동·문수동·교동여객선터미널입구 교차로 부근, 순천 조곡동·인제

동·매곡동, 고흥읍, 벌교읍, 화순읍, 강진읍)에서는 모두 각 7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전국 269곳의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광주는 3곳, 전남은 11곳이 포함됐다.

광주는 서구 화정동과 양동에서 5건의 고령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다쳤고 양림동에서도 5건의 사고가 났다. 전남에서는 여수시 교동에서만 2곳에서 각 6건의 보행자사고로 12명의 노인들이 다쳤다.

도로교통공단은 특히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세임에도 고령자 교통사고는 증가세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국 534곳이 선정된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에는 광주·전남에서 각 6곳이 선정됐다.

광주에서는 6곳 모두 4건의 이륜차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쳤다. 광주 이륜차 사고 다발지역은 서구 쌍촌동에만 3곳이 몰려있고, 북구 용봉동·문흥동, 광산구 월계동이 포함됐다.

전남에서는 목포시 상동과 순천시 연향동에서 6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전남 최대 이륜차 다발사고 지역으로 꼽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는 전국에서 335곳이 선정됐는데 광주는 6곳, 전남은 2곳이 포함됐다.

광주 6곳(서구 화정동·화정사거리·쌍촌동·쌍촌역 교차로, 광산구 신가동·선암동·수원동·장덕동)은 모두 3건씩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37

명이 다쳤다. 전남 2곳(여수시 여서동, 고흥군 도양읍)에서도 총 6건의 음주 교통사고로 9명이 부상을 입었다.

광주 5개 자치구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곳은 서구 화정동 광천사거리 인근으로 50건의 사고로 74명이 부상을 입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곳은 남구 송하동 행암교차로 인근으로 26건의 교통사고로 50명이 다치고 2명이 숨졌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초로 2000명대로 감소했다”면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현장점검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방학 중 무상급식 호평...공약대로 추진을”

광주 시민단체 “지난 여름 시범 실시 학교 학생 100% 만족”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공약인 방학중 무상급식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급식중사사, 전교조 광주지부 등이 반대해 시교육청이 제안한 방학중 무상급식 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7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여름방학 때 무상급식을 시범실시한 광주교대부설초등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각각 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 100%, 학부모 98.7%가 긍정적인 만족감을 보였다.

방학 중 급식 방식에 대해서도 학생 98.7%와 학부모 98.7%가 직영급식을 선호했다. ‘학기보다 방학 중 급식이 더 좋았다’는 질문에도 학생 94.8%와 학부모 98.7%가 호평했다. 겨울방학 무상급식에 참여할 의향도 학생 100%, 학부모 98.7%로 높았다.

방학 중 무상급식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7월 취임과 동시에 유·초등 저학년층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려다 급식 중사자와 교육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곳, 공립유치원 10곳을 직영급식 시범학교로 지정해 학교급식을 운영했다. /유영기 기자 penfoot@



7일 오전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학동 참사로 중단된 철거 공사가 1년 5개월여만에 재개됐다. /김진수 기자 jeans@

정홍식 광주지방보훈청장 취임



제41대 광주지방보훈청장에 정홍식(57) 병무청 입영동원국장이 임명됐다.

신임 정 청장은 대전 출신으로 1990년 공직에 입문해 병무청 병역공개과장, 사회복무관리과장, 입영동원국장 등을 역임했다.

정 청장은 7일 독립운동기념탑, 현충탑,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정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일류 보훈정책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보훈가족과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학동 참사’ 1년5개월만에 철거 공사 재개

현대산업개발, 건물 102채 내년 3월까지 완료 예정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붕괴사고 이후 1년 5개월만인 7일 오전 9시 3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의 철거 현장에는 신중한 분위기가 맴돌았다.

기왓장을 얽은 낡은 1층짜리 목조 주택 앞에선 30t짜리 포크레인이 참사 이후 처음으로 철거 공사를 재개했기 때문이다.

집게발 모양의 굴삭기 팔로 빗자루질 하듯 기왓장을 걷어내고 나무 기둥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뜯어냈다. 1시간에 걸쳐 벽체 한 쪽을 겨우 철거한 뒤에야 작업자들은 맘을 닦으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 공사가 전면 중지된 이후 520여일만에 재개됐지만, 아파트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산

적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철거를 해야 할 건물 100여채가 남았고 건물과 관련 명도소송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철거해야 하는 건물은 총 110채이다. 철거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3층 이상 중대형 건물은 42채이고, 관할구청에 신고만 하고 곧장 철거할 수 있는 2층 이하 소형 건물은 총 68채다.

광주시 동구는 허가를 요하는 42채 중 34채의 건물은 기존에 허가를 받은 적 있으나, 지난 3월 공사 중지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늘었다는 점에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해제계획서와 안전확보계획서 등 해제감리자가 승인한 검토 확인서를 제출하고, 현장에 배치된 건설 기술인 관리 조직도와 도급계약서, 산재보험가입증명서 등도 작성해야 한다. 현장에 감리를 상주시키고, 철거 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달성해야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다.

나머지 8동은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서류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들을 제외한 102채 건물은 오는 3월까지 모두 철거할 방침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철거작업이 끝난 이후 동구청·조합 등과 협의해 아파트 본 공사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며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불법 재하도급 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정부,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트라우마 관리해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5·18단체가 ‘이태원 헬러인 참사’와 관련 정부의 책임자 처벌과 트라우마 관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 지역 11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오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참사 트라우마를 정부가 나서서 체계적으로 치유하고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상자회는 “정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피해자들이 조속히 체계적인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

광주디지털훈련센터

장애인 직업훈련생 모집

소프트웨어
(SW)

빅데이터인공지능
(AI)

미디어컨텐츠
(VR)

디지털리터시
(오피스활용)

062)380-0606, 064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디지털훈련센터